



(사)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의 ‘회원의 날(KPDA MEMBERS’ DAY)’ 행사에서 열린 제7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에서는 단체부문에 목원대학교가, 학생부문은 한양대학교의 김지만 씨가, 일반부문에서는 (주)디엔시 임성철 부국장이 수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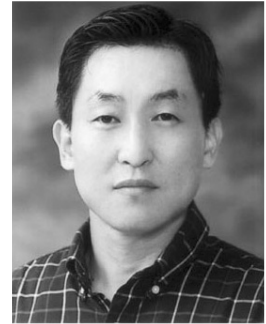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은 (주)원지의 한용교 회장의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발전기금을 통하여 디자이너들에 대한 공지와 위상을 높이고, 우수 디자이너를 육성하여 패키지 디자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수상들의 활약상을 살펴 본다.

- 편집자 주 -

# 포장 및 디자인 연계 견학 프로그램 다양화

이 종 우 / 목원대학교 미술대학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가 매년 패키지디자인을 위해 힘쓴 디자이너에게 수여하는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의 시상식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영동호텔에서 열렸다. 제7회 한용교 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에서는 단체부문에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종우 교수는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와 한용교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패키지에 대한 많은 애착과 자긍심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많은 공모전에 참여해 왔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알고 패키지분야 저변 확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목원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시각디자인전공은 1978년 대전 충청권에서 최초로 개설된 학과로, 그동안 배출된 수많은 졸업생들이 디자인 각 분야 특히 패키지디자인분야에서의 두드러진 활동으로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은 대한민국패키지디자인 공모전 대상,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전 대상 등 각종 패키지디자인 관련 공모전 입상으로 패키지디자인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시작된 NURI사업에 선정되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으며 질적 양적 성장을 거듭하고 있

습니다.”

해태 디자인실에 입사한 이후, 10여년 동안 패키지디자인에 대한 경험을 쌓아 온 이종우 교수는 대학재학시절부터 표면디자인을 하면서 느끼는 손맛과 완성되었을 때의 입체적 형태에 희열을 느끼면서 평면 그래픽작업이 줄 수 없는 입체적 포장작업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이 교수는 “패키지디자이너들은 개발자가 부여한 제품적 특성이나 마케팅 전략에 따른 프로젝트 컨셉을 잘 분석하여 이를 시각언어로 크리에이티브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하면서 “패키지디자인이 소비자의 관심과 신뢰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구매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학생들의 보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저변확대를 위해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 분야가 연계된 내실 있는 견학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시행되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종우 교수. 그는 앞으로도 학생들을 잘 지도하여 좋은 작품으로 공모전에 참여하게 하고 패키지디자인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계속 하고 싶다고 포부를 전했다. 목원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가 패키지디자인 업계 일익을 지속적으로 담당하기를 기대해 본다.

# 시대가 변해도 절차와 깊이있는 디자인 계속 돼야...

임 성 철 / (주)디엔시 부국장



“사람은 보통 큰 그릇의 사람과 작은 그릇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큰 상을 받게 된 것은 아직도 작기만한 작은 그릇을 채우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 선배님들께 감사드리고 협회 및 한용교 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7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에서 수상한 임성철 씨는 목원대학교 산업미술과를 졸업한 이후 (주)중근당 광고부/기호기획 업무를 거쳐, 1997년부터 현재까지 (주)디엔시 크리에이티브 1국 부국장으로, 톱크웨어(아이나비), 보령제약(아이닷컴/씨큐플렛/이소본플러스), 태제과(부라보콘/버터링/맛동산/텐더롤/베스트원)의 다수 패키지를 개발했다.

1992년 제1회 대전직할시전(시각디자인부문)에서 대상 수상을 비롯해, 2005년 제40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포장디자인부문)에서 특선, 제41회 대한민국산업디자인전람회(포장디자인부문)에서 중소기업중앙회장상을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그는 “수많은 패키지디자인을 개발해왔지만, 아직도 하면할 수록 어려운 것이 패키지디자인”이라고 밝히면서 “지기구조디자인, 표면그래픽 디자인, 상품과 소비자와의 관계, 좁은 스페이스, 좋은디자인, 잘한디자인 보다는 팔리는 디자인,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을 해야하기에 오늘도 조사에 분석에 토론에 녹초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임성철 부국장은 “일을 사랑합니다. 패키지디자인을 사랑합니다. 그 일을 하는 나를 사랑합니다.”라고 단언, 피력한다.

패키지디자인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지기구조디자인에 지대한 관심이 있는 임 부국장은 지기구조개발은 틈나는대로 공부하고 수집하고 연구하는 것을 즐기는 편이며 앞으로 패키지를 공부하는 후배들과 디자이너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기구조디자인에 관한 책들을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디자인 업계에 컴퓨터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는 디자인실에 물감과 붓이 사라졌다”는 임성철 부국장. 그는 “컴퓨터에 의존하는 젊은 친구들은 아이디어 스케치 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며 “그만큼 깊이있는 작품들을 기대 하기가 어려운 것에 아쉬움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디자인의 도구도 변화하고 발전해야하는 것이 바람직 하긴 하지만 그 어떤 디자인이든 절차가 있고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피력하는 임성철 부국장.

온고지신(溫故知新)의 마음으로 오늘도 패키지디자인업계 발전에 주력하고 있는 그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

# 언제나 변화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디자이너 될 터

김 지 만 / 한양대학교 시각패키지디자인학과 학생



제7회 한용교패키지디자인상 시상식에서는 한양대학교 시각패키지디자인학과 김지만 학생이 학생부문 수상자로 선정, 영예를 안았다.

“이렇게 영예로운 상의 주인공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다른 많은 우수한 학생들을 대표하여 받은 상이니만큼 더욱 잘하라는 채찍질로 여기고 겸손한 자세로 언제나 노력하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한양대 시각패키지디자인학과는 기본적으로 시각디자인의 분야들을 배우는것은 물론 특히 패키지 디자인이 특성화 되어있어 관련분야의 역량을 발전시키기에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자부심을 나타낸 김지만 씨.

패키지디자인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는 그는 방학을 이용하여 패키지 디자인 전문회사에서 인턴쉽을 수료하였고, 지난 2006년에는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 대학생 아이디어 그룹의 2기 팀장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또한 공모전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최근에는 '2006 팩스타' 공모전에서 특별상을 수상했다.

“제 손으로 만든 디자인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되어 그들의 손 안에 저의 크리에이티브가 살아 숨쉬는다는 점이 패키지 디자인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디자인한 패키지가 매장에서 여러 소비자들의 마음에 들어 선택된다면 정말 짜릿하고 기쁠 것 같습니다.”

김지만 씨는 “패키지 디자인은 내용물이 되는 제품의 속성을 잘 나타내주면서 또한 기능성과 심미성을 가지고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 중 어느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지만, 차근차근 풀어가는 과정이 그래서 더 즐거울 수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지만 씨는 한국패키지디자인협회에서 주관하는 ‘대학생 패키지 썸머 캠프’나 산학협동 등에 참여하면서, 학교 내에서의 공부 못지 않게 현업에서의 현실감각과 여러 선배님들의 생각을 배울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스스로도 즐겁게 참여했었고, 또 한걸음 발전할 수 있었던 자극이 되었기에 이러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표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은 항상 자기를 혁신해야 하는 직업이라고 밝히는 김지만 학생.

한단계 한단계 공부해 나가면서도 언제나 변화를 생각하고 연구하는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그의 행보를 기대해 본다. [K]